

우리가 이 곳을 거닌다 ... 바라보고, 머리 위에 있는 빛을.
머리 위에 온도가 없는 밝은 빛이 드리워서 속눈썹 아래로 눈에 그림자가 보이고.

거닌다.

이곳은 그저 서 있다.
(우리가) 서 있는 아이들 사이를 산책한다.

이곳은 작게 수다스럽고 속삭여, 말을 큰 소리로 내뱉지 않는다.
(완결된 풍경으로 이곳을 바라보는 너에게 그저 읽기 위한, 차단된 풍경으로써
소실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빛이 머리 위에 있다.
(이 곳에 열린 여러 문으로 입장.)
그곳에 서서 뭐 하고 있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걷는다. 신발 밑창에 닿아 조용하게 삐걱대는 불완전하고 딱딱한 바닥.
흰 바닥에 발자국이 남는다.

제단이 아닌 제단
(그리고 당신을 허용하는 무대)

위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아래로 내리고 몸을 돌려 걷고 뚫린 곳들 파내어진 곳들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본다 발은 잠깐 뒤를 돌았다가 앞을 보았다가 한다.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툭 칠듯이 서 있는 곡선의 나무들.

위를 쳐다본다. 또는 옆을.

흰 벽

흰 바닥

흰 그림

너무 시끄러운 것들의 세계에서 올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시끄럽게
읽으려고 시도할 때 이걸 더더욱 의미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시끄럽게 읽지
않기.

시각으로만 이 곳을 보는 것이 아니도록 존재하길 바라는지, 그런 자문에 잠깐의 혼란스러운 정적이 생긴다.

(권유: 이 곳에 열린 여러 문으로 입장.) 바닥에 한 발씩 닿는다. 산책하며 작은 춤을 추거나 춤을 추지 않거나, 벽을 손으로 쓸어 촉각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눈이 보는 자국만 생기는 흰 벽을 쳐다보거나 눈으로 온도가 있는 파내어진 자국들을 응시하거나. 그 두 가지가 아니어도 되고, 없음과 있음이 아니어도 되고. 자유를 준다고 했다.

(나무가 까지고 파내어진 움푹 파인 구멍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온 평평한 나무의 결면을 만지며 판넬은 나무에서 왔다고 잠깐 생각한다.)

아래의 그 뿌리.

자유가 뭐냐고, 당신이 주겠다는 그 자유가 뭐냐고. 걸어야 할 너무 많은 자유를 주었다는 게 자유는 아니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맞냐고.

나는 이곳이 답답해. 당신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흠여지는 재잘거림은 귀에 웅웅거리다가 사라지기만 한다. 말의 내용이 휘적대며 두런두런 들린다. 손목을 잡아끌며 붙잡아두지 않는다고. 시각이 과연 그 조용함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지만, 쇼핑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읽기가 없는 곳은 어떤 곳이냐고.

분별없이 무언가를 본다는 것. 사물과 세계의 본성 그대로를 분별없이
받아들인다는 것. 눈으로 만지는 것. 어쩌면 앞에 있는 모양들을 보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건거나 몸을 휩 돌리고 벽면을 촉각하는 것. 분류되고 싶지
않은 미숙하고 능숙한 조용함에서 나오는 이 곳을 그대로 봐주었으면 좋겠다며 서
있는 큰 벽들과 기둥과 딱 나만 한 희여멸건한 나무들. 또한 너의 몸이, 분별되지
않은 너의 고유한 몸이 이 곳을 그저 걸었으면 하는 솜은 바닥과 계단과 벽들과
너를 마주한 것들.

이제부터 말이 없는 곳에서 당신은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채우거나. 조건이 없는
조건들 앞에서.

흰 빛과 같은 레모네이드를 마신다. 직접 짠 레몬은 과육이 터지며 흰 바닥에 튈다.

지나가는 관객의 까만 눈동자. 사람의 눈동자였는지 고양이가 사냥감을 노릴 때의 까망이였는지. 굶이진

까만색 액정에 비치는 허연 얼굴과 검은 눈동자

잠깐 뜨는 알람.

흰 벽
흰 바닥
흰 계단
오솔길 같은 회색의 작은 길들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건기. 흰 벽을 눈으로 훑는다. 그 사이의 요철이 눈에 들어온다.
잠깐 것처럼 다리를 구부려 앉아

계단을 뚜벅뚜벅 오르기.
그리고 내려다보는 회지 않은 기둥
네모들.

온도가 있는 빛이 있다.
,

춤이 없는

있길 바라는

문자가 없는

반향이
아닌

계단 위의

어둠

아무도 주인공이 아닌 무대

버튼이 없는

부러 단단한 대답으로는 쪼개지지 않는

같이 놀자 여기 있어

걷는

있는

실내에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들어오는 조그만 바람

등 뒤의 햇빛으로 인한 약간의 열기

[나무들은 맞닿아 있지 않고 서로 파고들어 어우러져 있다

: Loggia에 대한 걷기]

글. 이수민